

2019년 희곡우체통 5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

<조니와 라디오>

올해 희곡우체통 5차 선정작 역시 지난 4회에 이어 이국적 제목의 <조니와 라디오>입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진단해도 될까요,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이 몰려오고 있다!” 라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작가들은 과거와 달리 민족적, 공간적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자유 속에서 부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또 우리 시대의 한 모습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조니와 라디오>는 다소 난해하고 관념적인 작품입니다. 분류하자면 연극 속에서 연극을 성찰하는 메타 연극 장르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젊은 작가 지망생이 준비하는 작품과 작가의 삶이 병치되며 연극과 청춘에 대해 사유하는 작품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붙지 않은 듯 관념적 특성이나 실험적 아이디어들이 채 머물지 않아 심사 과정에서 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 들어온 작품 중 이 작품을 능가할 문제작이 보이지 않았고, 완성도의 부족이나 난해함으로 떨어트리기엔 작품이 가진 사유의 가능성이나 금방 물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퍼득거리는 재기발랄함 또 조금씩 정체를 드러내는 젊음의 혼돈과 방황이 어여쁘고 아까웠습니다. 올해의 다섯 번째 희곡우체통은 이 길들여지지 않은 싱싱한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볼까 합니다.

작품의 중요한 극적 공간은 두 젊은 예술가가 승선한 기차공간이죠. 오래 전의 영화인 <비포 선라이즈>처럼 가진 것 없는 두 젊은이가 우연히 여행에서 만나 젊음의 한 순간을 공유하며 예술과 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관객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속절없이 지나간 젊음을 떠올리며 혹은 아직 그 속에서 찢찢매고 있을 이삼십대의 젊음과 함께, 관객여러분도 이 기차에 승선해 주십시오. 당신 옆 자리에 빈센트 반 고흐가 혹은 인정받지 못하고 좌절을 곱씹었을 또 다른 젊은 예술가들이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일상 속에 잊어버렸던 당신의 서툰고 투명했던 젊은 영혼도...

희곡우체통은 국립극단이 공연할 문제작을 찾기 위해 2018년에 마련한 상시 투고제도입니다. 동시대의 시의적절한 주제와 형식을 갖춘 장막극을 환영합니다. 신춘문예용 단막극은 국립극단에서 공연할만한 장막극으로 수정, 보완해서 투고해주십시오.

동시에 국립극단은 이 제도를 통해 비록 공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성 있는 여러 편의 창작극을 발굴하여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형식의 낭독회이긴 하지만, 작가가 문자로 구축한 세계가 실제 관객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효과와 문제가 있을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 낭독공연을 매개로 가능성 있는 작품이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관객 여러분도 낭독공연이라는 징검다리를 함께 놓아주십시오.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김명화